

# 整理本 上博簡 <詩論> 竹簡의 排列順序에 대한 論議考

姜信碩\*

##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整理本의 배열순서에 대한 異見
3. 《解義》의 復原, 재배열
4. 정리하는 말

## 1. 시작하는 말

《上博簡》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簡》<sup>1)</sup>을 줄인 말로, 郭店簡과 함께 20세기 말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지하자료로서, 秦簡보다 앞선 先秦 楚나라 竹簡을 가리킨다. 先秦 戰國 楚竹簡 <詩論>의 발견은 학계에서는 文獻學과 學術史의 측면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로는 문헌학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최초의 비교적 체계적인 孔門 《詩經》學 저술이라는 점이고, 둘째로는 中國經學에 있어 중요한 분야인 《詩》學史 내지 學術史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문건이라는 점이다.

李學勤 등은 (1) 戰國시기 《詩經》의 원형 복원(문구, 편명, 배열순서 등)에 대한 문제, 예컨대, 현행본 漢代 毛詩 이전의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의 《詩經》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孔子의 《詩經》 정리 여부에 대한

\* 群山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馬承源 註釋, 上海古籍出版社)가 처음으로 죽간의 순서를 정리한 판본이기 때문에, 이 책을 편의상 整理本으로 부르기로 함.

문제(刪詩說), 孔子의 《詩》學 또는 전통 《詩》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 (3) 孔子이후 《詩》學의 전승과정을 밝히는 문제. (4) <詩論>과 《毛詩序》의 비교 연구를 통해 毛詩序의 저자, 大序와 小序의 관련 등을 규명하는 문제. (5) 毛詩, 三家詩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들 관계를 밝혀내는 문제. (6) 전통 《詩》學에 대한 인식발전의 과정을 밝히는 문제. (7) 漢代 經學家들의 《詩經》에 대한 고정된 개념의 틀을 벗어나 《詩經》 本義를 알아내는 문제 등을 제기하고,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2)</sup>

연구자는 上博簡 <詩論>의 학술적 가치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어왔던 죽간의 배열, 문자의 해독 문자의 분석 등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만 도출 가능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입각하여 기존 학계에서 제기된 배열순서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필자가 <詩論> 총 29枚에 대한 考釋을 진행하면서,<sup>3)</sup> 죽간의 크기와 형식, 평문의 형식과 내용을 근거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2. 整理本の 배열순서에 대한 異見

馬承源의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가 출간된 후, 많은 학자들이 죽간 내용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순서에 대한 異見을 제시하였다.<sup>4)</sup> 整理本の 죽간순서에

2) 이상은 黃懷信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詩論> 解義》(이하 《解義》로 줄여 부름)의 1-4쪽의 李學勤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을 재인용하여 정리함.

3) 필자는 上博簡 <詩論> 총 29枚에 대한 釋文考釋을 진행하여 그동안 《中國語文論叢》 第29輯에 <上博簡 <孔子詩論>의 釋文考釋에 대한 검토(I)>(제1간부터 제10간까지), 《中國語文學論集》 第43號에 <上博楚簡 <詩論>에 대한 考釋(II)>(제11간부터 제19간까지), 《中國語文論叢》 第33輯에 <上博楚簡 <詩論>에 대한 考釋(III)>(제20간부터 29간까지)라는 論題로 발표하였다.

4) 黃人二是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一) 研究》(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에서 整理本の 죽간 배열 순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밖에 胡平生의 《做好 <詩論> 的編聯與考釋》(《文藝研究》2002. 第2期)나 周鳳五의 《論上博 <孔子詩論> 竹簡的留白問題》(《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

대한 이견은 주로 分章의 처리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장의 근거로는 敘述方式, 留白簡, 標點符號의 처리문제 등이 초점이 되었다.

### 1) 서술체계

먼저, <詩論>의 서술방식은 體裁나 分章 등을 추정하는 단서로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詩經>의 내용을 평론하는 체재이고, 둘째는 서술자의 논리전개 방식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馬承源, 濮茅左, 黃人二, 廖名春 등은 上博簡 楚竹書의 발견으로 현행본 <詩經>의 순서가 후대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원래 先秦시기 <詩經>의 순서는 頌, 大雅, 小雅, 風이었으며, 이 순서에 따라 <詩經>을 평론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반면에 李學勤, 姜廣輝, 范毓周 등은 上博楚簡 <詩論> 역시 현행본 <詩經>의 순서와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風, 小雅, 大雅, 頌의 순서에 따라 배열 순서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로, 馬承源, 濮茅左 등은 毛詩 大序와 小序의 형식과 같이, 먼저 총론을 서술한 후 각 작품에 대해 평론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반면에 李學勤, 李零, 廖明春 등은 먼저 각 작품을 평론한 후 총론을 가장 나중에 서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姜廣輝, 范毓周 등은 이 두 견해를 절충하여 총론을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놓고, 작품내용에 대한 평론은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논지를 명확히 전개시켰을 것으로 추론하였다.<sup>5)</sup>

이상과 같이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본 총 29매 배열순서의 숫자에 따라 분장여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書研究》187-198) 에서는 죽간 배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순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5) 이상의 내용은 曹建國의 논문 <論上博<孔子詩論>簡的編連>에서 정리하여 재인용함. 이외에도 馬銀琴, 王小盾의 논문 <上博簡<詩論>與<詩>的早期形態>에서는 <詩論>의 내용을 <詩序>, <頌>, <大雅>, <小雅>, <風>, <綜論>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순서를 배열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上博簡 <詩論>의 배열을 근거로 하여 현행본 <詩經>의 작품배열과 서술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1) 分章하지 않는 경우

李零：1-19-20-18-11-16-10-12-13-14+15-24-27-29-28-25-26-17-8-9-23-21-22-6-4-5-7-2-3<sup>6)</sup>

2) 姜廣輝：4-5-1-10-14-12-13-15-11-16-24-20-27-23-19-18-17-25-26-28-29-8-9-21-22-6-7-2-3<sup>7)</sup>

3) 濮茅左：1-2-3-4-5-6-7-8-9-10-14-15-11-12-13-16-20-24-19-17-18-21-22-23-25-26-27-28-29<sup>8)</sup>

4) 范毓周：4-5-6-1-10-11-19-15-16-12-14-13-24-20-18-27-29-28-26-17-25-23-9-8-21-22-7-2-3<sup>9)</sup>

5) 李 銳：10-14-12-13-15-11-16-24-20-19-18-9-21-22-23-27-25-8-28-29-26-17-4-5-6-7-2-3-1<sup>10)</sup>

6) 曹 峰：10-14-12-13-15-11-16-24-20-19-18-8-9-21-22-23-27-26-25-28-29-17<sup>11)</sup>

(2) 分章하는 경우

李學勤：

10-14-12-13-15-11-16-24-20-27-19-18

8-9-17-25-26-23-28-29-21-22-6

7-2-3

4-5-1<sup>12)</sup>

6) 李零 〈上博楚簡校讀記(之一)〉(《中華文史論叢》, 第68輯, 2002. 4). 제14간과 제15간을 하나의 죽간일 것으로 추정함.

7) 姜廣輝 〈關於古〈詩序〉的編連、釋讀與定位諸問題研究〉(《中國哲學》第24輯).

8) 濮茅左 〈孔子詩論簡書解析〉(《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 2002. 3. 9-50).

9) 范毓周 〈上海博物館藏楚簡詩論的釋文、簡書與分章〉(《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173-186).

10) 李銳 〈孔子詩論簡序調整芻議〉(《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192-198).

11) 曹峰 〈對孔子詩論第八簡以後簡序的再調整〉(《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199-209). 第8簡 이상의 순서만을 다룸

廖名春：

上篇：1-8-9-10-14-12-13-15-11-16-24-20-19-18-27-29-26-28-17-25-23-21-22- (6)

下篇：4-5- (21-22) -6-7-2-3<sup>13)</sup>

曹建國<sup>14)</sup>：

上篇：第一章：1 (上半段) ■ -1 (下半段) 第二章：8-9-21 (上半段) 第三章：21 (下半段) -22 第四章：23-27 (上半段) 第五章：27 (下半段) -17-25-26-28-29■

中篇：第一章：10-14-15-11 (情愛也) 第二章：11 (“關雎”이하) -16 (上半段) 第三章：16(下半段) -24-20-19 第四章：12-13-18■

下篇：第一章：4-5 (上半段) ■ 第二章：5 (下半段) -6-7-2 (詩也, 文王受命矣) 第三章：2 (“頌, 旁德也”이하) -3

## 2) 留白簡, 標點符號에 대한 처리

整理本の 제2간부터 제7간까지는 양 끝이 공백상태인 留白簡으로 되어있다. 학계에서는 이 留白簡은 글자가 빼곡히 쓰여 있는 滿寫簡과는 다른 형식일 것으로 간주하여 배열순서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제2간에서 제7간까지 각 편선의 양끝 상단 8.7cm, 하단 8cm를 공백상태로 남아 있어 문자를 빼곡히 쓴

12) 李學勤〈《詩論》簡的編聯与夏原〉(《中國哲學史》2002. 第2期) .〈上海博物館藏楚竹書詩論分章釋文〉(《國際簡帛研究通訊》 第二卷 第二期, 2002. 1).

13) 廖名春〈上博詩論的形制與編連〉(《孔子研究》, 2002. 第2期). 전체 내용을 上, 下로 分篇함.

14) 曹建國〈論上博孔子詩論簡的編連〉. <http://www.jianbo.org>. 형식체제, 언어, 사상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순서를 상, 중, 하 3편으로 나눠 배열하고자 했다. 먼저 형식체제의 따른 배열에 대해서는 여백이 남겨진 죽간(留白簡)부분과 문자기록으로 빼곡히 채워진 죽간(滿寫簡)부분을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시키고, 표점부호 ■, ■, ■를 각각 分卷과 分章 표시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언어에 대해서는 문장구조와 단어사용의 예와 특징에 따라 배열을 시도하였으며, 사상에 대해서는 시에 대한 해석상의 관점이 시대적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예를 들어 孔子의 禮의 관점에서의 《詩》의 해석과 이후 思孟학파의 五行의 관점에서의 《詩》의 설명은 다르기 때문에, 배열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것과는 다른 형태가 분명하다.

첫째, 留白簡과 滿寫簡을 별개의 형태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제1간 22cm의 상하양단의 결손부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馬承源, 廖名春, 曹峰, 李銳, 濮茅左, 曹建國 등이 주장하고 있으며, 馬承源은 제1간을 제2간 앞에 놓았고, 廖名春은 제1간을 滿寫簡으로 간주하여, 上博簡의 다른 내용인 <子羔>편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曹峰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여겨 아예 배열 순서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유백간과 만사간의 체제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李學勤, 周鳳五, 姜廣輝 등이 주장하고 있다. 李學勤은 죽간의 축소나 확장, 기록된 문자의 탈락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周鳳五는 일반적인 선진 초죽간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유백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원래는 글자가 쓰였으나 나중에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姜廣輝는 유백간의 존재는 시서와 같은 형식에서만 가능하나, 제2-7간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서사자가 이미 파손된 저본을 입수하여 없어진 글자 수를 대충 짐작하고 일정한 글자 수 만큼 비워두고 베꼈거나, 혹은 서사자가 여백의 문자를 의도적으로 파손시켰을 가능성도 내포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셋째, 유백간의 여백에 아예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로 馬承源, 濮茅左, 廖名春 등이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上博簡에는 세 가지 종류의 표점부호가 사용되었다. 즉 길고 두꺼운 흑점 ■, 짧고 가는 흑점 ─, 짧은 꺾인 흑점 ㄣ과 같은 종류의 부호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부호는 上博簡의 構成體系, 특히 문장의 段落, 分章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로 간주될 수 있다.

### 3. 《解義》의 復原, 재배열

학계에서는 최근 黃懷信的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詩論〉解義》<sup>15)</sup>가 출

간되었는데, 이 자료는 李學勤의 의견을 주로 참고하여 죽간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詩論>의 형식과 내용을 復原한 것이다. 필자는 <解義>를 근간으로 복원된 내용을 먼저 소개한 후, 整理本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다섯 가지의 평론형식<sup>16)</sup>은 죽간의 배열과 분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일단 整理本의 죽간의 순서에 따른 숫자에 의거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排列, 分篇, 分章에 대한 이견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각 죽간의 내용, 크기와 형식, 평론 형식 등에 근거하여 배열순서를 추론해보기로 한다.

隸定이나 문자에 대한 해석, 句讀點, 傍點은 기본적으로 整理本을 따르기로 한다. 복원된 죽간의 번호는 문장 뒤 부분에 표시하기로 하며, 합문 혹은 정리본의 순서는 죽간의 끝 부분에 숫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결손되어 보이지 않지만 해당되는 문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엔 문맥의 전후에 따라 보충할 자를 보충하여 ‘[ ]’로 표시하며, 해당되는 문자는 알 수 없으나 그 수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엔 □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하며, 해당되는 숫자도 모르고, 숫자로 모르는 경우엔 ‘……’의 부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第一章 <關雎>之改, <樛木>之時, <漢廣>之知, <鵲巢>之歸, <甘棠>之保(報), <綠衣>之思, <燕燕>之情, 害(曷)? 曰: 童(終)而皆賢于其初者也. <關雎>以色喻于禮. □□□□□□□□ 10

15)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詩論> 解義>(黃懷信, 社會科學文獻出版社)를 <解義>로 줄여 부르기로 함. 黃懷信(曲阜師範大學 孔子文化學院) 교수는 <上博簡<詩論>復原與訓譯(한국철학논집 제 16집 356-365쪽)>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의 復原은 黃懷信의 <解義>와 이 논문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16) <詩論>의 竹簡 형식과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첫째로, <頌>·<大雅>·<小雅>와 <國風>에 대한 개괄적 평론 형식이다. 둘째로, <毛詩序> 小序와 같이 <詩經>의 詩句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내용을 평한 형식이다. 여러 편의 내용을 논술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한 簡 안에 <國風>에 대해서만 논술한 형식이다. 넷째로, 한 簡 안에 <國風>과 <大雅>, 혹은 <國風>과 <小雅>를 함께 논술하는 형식이다. 다섯째로, <毛詩序> 大序와 같이 <詩經> 전체를 평론한 형식이다.

죽간의 길이 46cm에 모두 46(重文 鳥=포함)자가 남아있으며, 만사간의 형태로 간주할 경우, 9자 내외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國風》의 <關雎>, <樛木>, <漢廣>, <鵲巢>, <甘棠>, <綠衣>, <燕燕> 등 일곱 편에 대하여 각 시들의 특징과 요지를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에서 關雎篇에 대해 ‘改’라고 평론한 것을 다시 ‘以色喻於禮’라고 반복하고 있다.

兩矣, 其四章則喻矣. 以琴瑟之悅, 擬好色之願願, 以鐘鼓之樂 [擬婚] 14

馬承源은 ‘兩矣’을 제13간과 연결시켜 <鵲巢>의 ‘百輛’의 ‘輛’으로 보고 있으나<sup>17)</sup> 문맥상 억측으로 보인다. 李零은 제10간과 연계시켜 <關雎>를 언급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琴瑟’·‘好色’·‘鐘鼓’ 등의 단어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령의 견해인 <關雎>를 평론하는 내용임이 확실하며, 제10간, 제12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10간에서는 <關雎>의 주지를 한 단어인 ‘改’라고 평하였으며, 제12간에서는 국풍의 작품들, 예컨대 <關雎>를 필두로 열거하면서 순서대로 평론을 가하고 있으며, 제14간에서는 구체적인 <關雎>의 구절만을 제시하면서 시의를 평론하고 있다. <詩論>의 평론 전개형식을 근거로 볼 때, 제14간은 제10간과 제12간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제14간의 후반부 끝부분은, 문맥상 ‘鐘鼓의 즐거움’으로 ‘혼인의 기쁨’을 빗대어 노래한 것이라는 전반부와 흡사한 형식의 평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擬婚姻之”의 내용이 파손되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해서 제12간의 처음부분인 “好,反納於禮”로 <關雎>에 대한 평론부분이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好, 反內于禮, 不亦能改乎? 《樛木》福斯在君子, 不 [亦有時乎? 《漢廣》不求] 12

죽간의 길이는 18.5cm미터로 위 아래 끝부분이 부러진 상태이므로, 전체 내용은 앞뒤 문맥을 추정하여야 가능하다. 모두 18자(‘弓’는 습文)로 이뤄졌다. 전반부

17) 馬承源 主編 前揭書(一) 143쪽.



10자는 <關雎>를 평론하는 내용으로, 제10간, 제14간, 제11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형식은 먼저 짧은 문장으로 주지를 밝힌 후, 不亦 ~ 乎? 강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후반부 8자 역시 <樛木>을 같은 방식으로 평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부러진 앞부분은 제10간에서 <關雎>를 ‘改(怡)’라고 평론한 것을 근거로 볼 때, ‘好(즐거움)’ 앞에 남녀의 혼인과 관련된 단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끝 부분의 마지막 글자는 ‘不’일 것으로 추측되며, 제10간에서 <樛木>을 한 글자 ‘時’로 주지를 밝혔으므로, 사라진 나머지 부분을 보충할 경우, 최소한 네 글자 “亦有時乎?”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李零은 제12간을 《詩經·國風》의 <關雎>, <樛木>, <漢廣>, <鵲巢>, <甘棠>, <綠衣>, <燕燕> 등 일곱 편에 대하여 각 시들의 특징과 요지에 대한 평을 전개하고 있는 제10간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는 반면<sup>18)</sup>, 廖名春 등은 <關雎>만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평론인 제14간과 연결하여 보고 있다.<sup>19)</sup> 두 가지 견해 모두 <關雎>에 대한 평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서술방식으로 판단해보면, 제12간의 전반부는 <樛木>에 대한 평론으로 추정되고 후반부가 <漢廣>에 관한 평론이며, 제13간이 <鵲巢>에 관한 평인 것으로 보아, 문맥상 제12간의 앞부분은 제10, 14간 <關雎>에 대한 평론부분과 이어지고, 후반부는 <漢廣>를 평론하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제13간으로 연결시켜 배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不] 可得, 不攻不可能, 不亦知恒乎? 《鵲巢》出以百兩, 不亦有離乎? 《甘棠》》 13

문장의 형식이 제12간과 흡사하고, 전반 12자 가운데 “不亦智恒乎”는 제10간에서 “<漢廣>之智”라고 평론한 것을 근거해 볼 때, 구문의 형식상 제12간 후반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임이 확실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13간의 첫 부분은 國風 周南의 아홉 번째 작품인 <漢廣>에 관한 평론으로, 작품의 내용이 얻을 수 없는 또는 이를 수 없는 대상을 포기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전반부분의 시작이 문맥상 ‘可

18) 李零 前揭論文 11쪽.

19) 廖名春 <上博<詩論>簡의形制和編連> 인터넷사이트 www.jianbo.org 논문 7쪽.

得'을 부정하는 단어 '不'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반부분은 國風 召南의 첫 번째 작품 <鵲巢>를 평론하고 있으며, 끝 부분은 남아 있는 글자로 보아 召南의 다섯 번째 작품인 <甘棠>에 대한 평론일 것이므로, 제15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思] 及其人, 敬愛其樹, 其保(報)厚矣. 甘棠之愛, 以召公 [之故也. <綠衣>憂無已, 憂無] 15

죽간의 길이는 18.4cm미터이고 상단과 하단부분이 모두 부서진 상태로 18자가 남아있다. <甘棠>은 국풍 召南의 여덟 번째 작품이다. 整理本은 이 시구를 <甘棠>에 대한 평어이고, '其人'은 邵公을 가리킨다고 보았다.<sup>20)</sup> <毛詩序>는 “<甘棠>은 召伯(소백)을 찬미한 시로, 소백의 교화가 남쪽나라에 밝혀진 것이다”<sup>21)</sup>라고 평론하였으며, 실제 시도 백성들이 소백의 덕을 그리워하여 그가 정사할 때 머물렀던 팔배나무를 사랑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남아 있는 제15간의 주 내용이 <甘棠>에 대하여 평론하고 있음을 근거로 볼 때, 파손된 끝부분이 '甘'자인 제13간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제10간에서 전체 詩意를 한 글자 '保(褒)'라고 평한 다음, 제13간의 끝 부분에서 시작하여 제15간 전반부까지 <甘棠>의 詩意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론하는 서술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끝 부분은 문맥상 “소공을 그리워한 까닭이라”는 “之故也.”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짙다. 이어지는 후반부는 제10간에 남아있는 작품의 순서를 근거로 볼 때, <綠衣>에 대한 평론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亡(忘), 不亦有思乎? <燕燕>] □□□□□□□□情愛也. <關雎>之改, 則其思隘(益)矣. <樛木>之時, 則以其祿也. <漢廣>之知, 則知不可得也. <鵲巢>之歸, 則離者 11

죽간의 길이는 38.1cm로 윗부분은 파손되었고, 아랫부분은 반원형으로 비교

20) 馬承源 主編 前掲書 144쪽.

21) <詩經·召南·甘棠>〈毛序〉“甘棠, 美召伯也, 召伯之教, 明於南國”

적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38자가 남아있는 滿寫簡의 형태이다. 유일한 완전한 滿寫簡인 제2간의 길이 55.5cm임을 기준할 때, 윗부분에 최소한 17cm 17자 이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李零은 이 죽간의 내용을 다른 시와는 별개의 독립 단락으로 보고 있는 반면<sup>22)</sup>, 整理本에서는 <鳥(鳥鳥)>을 평론한 殘簡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3)</sup> 黃懷信은 맨 앞부분 “情, 愛也”는 整理本의 견해를 참고하여 제15간의 남은 뒷부분 <甘棠>평론 내용을 추정 보충하고, 사라진 <綠衣>에 대한 평론을 복원시켰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燕燕>을 평론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11간에 연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解義>에서는 ‘離者’ 뒤에 앞부분이 파손된 제16간의 내용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遠矣’라는 단어를 보충하여 해석을 시도하였다.<sup>24)</sup>

[遠矣. <甘棠>之保(報), 思] 召公也. <綠衣>之憂, 思古(故)人也. <燕燕>之情, 以其獨也. 第二章 孔子曰: 吾以(於)<葛覃>得氏初之詩(志). 民性固然, 見其美必欲反(其)本. 夫葛之見歌也, 則 16

죽간의 길이는 47.8cm로 상단부분은 부서진 상태이고 하단부분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온전한 滿寫簡의 형태로 추측되며, 모두 50자가 남아 있으므로 6-7자 정도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죽간의 배열순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馬承源 등은 제16간의 내용이 <甘棠><綠衣><燕燕>에 대한 평어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제10간 “綠衣之思, 燕燕之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sup>25)</sup> 黃懷信은 제11간과 연결시켜 해석하였다.<sup>26)</sup> 필자의 견해로는 제10간의 평어 순서가 <關雎><樛木><漢廣><鵲巢><甘棠><綠衣>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甘棠>에 대한 평어로 시작하고 있는 제16간은 제11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는 <解義>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李零 등은 제16간에 이어지는 죽간의 순서로 제10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關雎>之改(怡)”로 시작하고 있어 葛藤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그 관련성을 찾기는

22) 李零 <上博楚簡校讀記>(《中華文史論叢》 第68輯) 10쪽.

23) 馬承源 主編 前揭書(一) 141쪽.

24) 黃懷信 前揭書 37쪽.

25) 馬承源 前揭書 145쪽.

26) 黃懷信 前揭書 19쪽. 51-55쪽.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李學勤, 黃懷信 등의 주장처럼 제16간의 孔子가 葛藤을 비유로 들어 《詩經》의 내용을 義理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24간과 연결하여 배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본다.

以藜藿之故也；后稷之見貴也，則以文武之德也。吾以(於)《甘棠》得宗廟之敬。民性固然，甚貴其人，必敬其位；悅其人，必好其所爲，惡其人者亦然。〔吾以(於)〕  
24

죽간의 길이가 53.8cm로 上端의 반원모양이 부분적으로 부서지고, 下端은 파손된 상태로 모두 54자가 남아있다. 黃懷信은 滿寫簡으로 간주하여 원래 죽간이 56자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하단부분에 [吾以] 2자를 추가하였다.<sup>27)</sup> 이 죽간의 첫째 글자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글자는 훼손이 심하고 세 번째 글자는 남은 부분이 워낙 희미하여 문맥에 따른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李學勤은 이 죽간을 제16간과 연결하여 《周南·葛覃》에 관한 평론으로 보고 있고, 李零은 제15간의 전반부를 《周南·葛覃》에 관한 설명으로 보고 제24간과 연결시켰다. 두 학자 모두 〈葛覃〉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필자는 논란의 대상인 제24간의 상단부분에 남아있는 문자의 완전한 형태와 평론의 구체적인 대상을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먼저 이미 살펴본 제16간에서 孔子가 〈葛覃〉에 대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 아름다운 德에 대한 영원무궁한 추구임을 칙녕 쿨을 비유로 들어 평론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葛覃〉편의 “잎새 무성하여라(維葉萋萋)”라는 구절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연결시켜 보기로 한다.

〔《木瓜》得〕幣帛之不可去也。民性固然，其隱志，必有以俞(抒)也。其言有所載而後內(納)，或前之而後交，人不可干也。吾以(於)《杖杜》得雀(爵)〔服之〕□□□□□□ 20

죽간의 길이가 44.3cm로, 위아래 끝 부분이 모두 파손되었으며, 모두 44자가 남아있다. 온전한 滿寫簡과 비교해 본다면, 적어도 11cm의 길이에 11자 정도가

27) 黃懷信 前掲書 7쪽.

부서져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부 첫 글자 ‘霽’자는 곧 ‘幣’자로 해석되며, ‘幣帛’이란 선물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시의 평론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衛風〈木瓜〉를 설명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짙으며, 이렇게 가정해 볼 때 문맥상 제24간과 연결시킬 수 있다. 후반부는 小雅〈有杕之杜〉에 관한 평론부분으로, 문맥상 사라져 구체적인 평론내용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남겨진 부분만을 근거로 추리해볼 때, 서술된 내용과 가장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27간의 전반부와 연결시킬 수 있으며, 제18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如此可，斯雀(爵)之矣。離其所愛，必曰吾奚舍之，賓贈是也。  
第三章 孔子曰：《蟋蟀》知難。《中(仲)氏》君子。《北風》不絕。人之怨子，  
泣不〔敢言。《雨無》27


죽간의 길이가 43cm미터이고 총 42자가 현존하며, 上下端이 모두 부서져있다. 滿寫簡으로 볼 경우, 上下端 부분 12.5cm미터에 12자 이상 더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죽간의 전반부 평론내용에 대한 추정은 논란이 많다. 馬承源은 <可斯>는 편명으로 《小雅·節南山之什·何人斯》 혹은 《召南·殷其雷》 중의 한 편일 것으로 추정하고, 첫 구절을 “女(如)此，<可斯>雀之矣”로 이해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평론내용을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sup>28)</sup> 李零은 제24간의 ‘吾以’ 이하 하단부로부터 제27간 상단부를 연결하여, <甘棠>을 평론하는 부분으로 추정하였으며, <可斯>는 편명 <何人斯>를 가리키고, ‘雀’은 ‘諫(힐책하다, 꾸짖다)’의 의미로 보았다.<sup>29)</sup> 이와는 달리 李學勤은 <可斯>를 편명이 아닌 문장서술로 간주하여, “女(如)此可，斯雀之矣”로 보았다. 이 평론문장은 제20간의 <杕杜>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그 연결된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모호하다. 李零은 문장의 구두점을 “人之寘(怨)，子立”으로 간주하여 ‘子立’을 《詩經》의 편명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李學勤은 ‘立’을 ‘泣’으로 이해하고 제8간과 연결하여, 이를 《小雅·雨無正》에 대한 평어라고 보았다. <子立>은 현행본에는 존재하지 않기

28) 馬承源 前掲書(一) 157 쪽.

29) 李零 前掲論文(《中華文史論叢》) 13 쪽.

때문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李耑 견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작품 편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어쨌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滿寫簡인 제8간과는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小雅·雨無正》 역시 당시 정치가 왜곡되어 기근과 전란이 끊이지 않아 백성의 고통이 뼈에 사무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주제와 문맥상 일맥상통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물론 단정 지을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馬承源, 黃懷信, 李學勤이 주장하는 문자와 문장해독 등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종합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隴’는 ‘離’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賓贖’이란 죽은 사람의 수장품을 가리킨다. 讒訴하는 사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게 됨을 풍자와 견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어찌 그를 잊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喪禮에 귀한 물건을 보내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小雅〈何人斯〉과 밀접한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전반부 “如此”는 제20간 후반부 小雅〈有杕之杜〉와 관련되는 평론일 것으로 보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可斯’는 문장이 아닌 小雅〈何人斯〉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正]是也] □□□□□□□□□□ [《柏舟》]强志, 既曰“天也”, 猶有怨言. 《木瓜》有藏願而未得達也. 19

마지막 문자인 ‘’에 대하여 整理本은 ‘交’자로 단정하였으나, 李學勤은 제18간과 연결하여 ‘因’자의 부서진 부분으로 보았다.<sup>30)</sup> 남은 글자의 흔적과 제18간이 木瓜에 관한 평론으로 이뤄져있음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있는 견해로 판단된다.

因木瓜之保(報), 以諭(抒)其怨者也. 《杕杜》則情, 喜其至也. 18

整理本은 이 제18간부터 제29간까지를 綜論으로 간주하였다. 李學勤은 제18간과 제19간은 원래 한 죽간이었던 것이, 부서져 그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제19간 아래 끝의 부서져 남은 ‘交’의 윗부분과 제18간 위 끝의 부서지고 남은

30) 李學勤〈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詩論》分章釋文〉, 인터넷사이트 [www.jianbo.org](http://www.jianbo.org)에서 인용.

‘因’의 아랫부분을 연결하여, 두 죽간의 흔적으로 남겨진 글자의 정체를 ‘因’으로 보았다.<sup>31)</sup>

第四章 <十月>善諱言. <雨無正>·<節南山>皆言上之衰也. 王共耻之. <小旻>多疑矣. 言不中志者也. <小宛>其言不惡. 少有仁焉. <小弁>·<巧言>則言讒人之害也. <伐木> [怨人] 8

<十月>은 <小雅>의 <十月之交>를 가리킨다. <伐木>은 <小雅·鹿鳴之什> 중의 하나이다. 죽간의 전체적인 길이로 보아 두자 정도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伐木>은 아래 제9간과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 <伐木> 중 ‘썸’과 관련된 구절은 “이미 살진 수컷 짐승을 장만하여 동성의 백숙제부(伯叔諸父)들을 초청하니 마침 일이 있어 오지 못할지언정 내게 허물이 있음은 아니라네.”<sup>32)</sup>이다.

實咎于其(己)也. <天保>其得祿茂疆矣. 巽寡德故也. <祈父>之責. 亦有以也. <黃鳥>則困而欲反其故也. 多耻者其病之乎? <菁菁者莪>則以人益也. <裳裳者華>則 9

整理本은 <崇(崇崇)者芋>의 다음을 다른 간과 단절된 독립된 내용으로 간주하여 제10간 <國風>의 내용과 연결하고 있으나, 평론하고 있는 서술방식을 고려해 볼 때, <小雅>의 시들인 <將大車>과 <湛露> 등을 평하고 있는 제21간과 연결하여 순서를 재배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貴也. <將大車>之器也. 則以爲不可如何也. <湛露>之賤也. 其猶車它與(歟)? 第五章 孔子曰: <宛丘>吾善之. <猗嗟>吾喜之. <鵙鳩>吾信之. <文王>吾美之. <清廟>吾敬之. <烈文>吾悅] 21

제5간의 <清廟>는 종묘의 예를 존경함을 근본으로 삼았고, 제6간의 수많은 선비들이 문황의 덕을 받들었다는 시구를 경애한다는 내용을 근거해 본다면, [敬之]

31) 黃懷信 前揭書 8쪽 재인용.

32) <小雅·鹿鳴之什>(伐木) “既有肥牡. 以速諸舅. 寧適不來. 微我有咎.”

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제5,6간의 평론된 순서가 <清廟><烈文><昊天有成命>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21간의 평론순서가 <宛丘><猗嗟><鵙鳩><文王><清廟>로 이어지고 있고, 제22간의 평론순서가 <宛丘><猗嗟><鵙鳩><文王>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서진 제21간 끝부분과 제22간 시작부분에 <清廟> 다음으로 <烈文>과 <昊天有成命>에 대한 평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之, <昊天有成命>吾] □之. <宛丘>曰:“洵有情”, “而亡(無)望”, 吾善之. <於(猗)嗟>曰:“四矢反”, “以御亂”, 吾喜之. <鵙鳩>曰:“其儀一氏是(兮), 心如結也”, 吾信之. <文王> [曰]: “[文] 王在上, 於昭于天”, 吾美之. 22

제21간에서는 孔子의 <宛丘><猗嗟><鵙鳩><文王><清廟>의 평에 대하여 ‘善’ ‘喜’ ‘信’ ‘美’ 각 한 글자로 평하였으며, 제22간에서는 각각 인용구를 제시함으로써 평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부연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21간과 제22간은 다른 죽간과 배열순서를 연결하여 억지로 해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원래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판단된다. 제21간처럼 한 글자로 평론하는 방법은 제10간의 <關雎>, <樛木>, <漢廣>, <鵲巢>, <甘棠>, <綠衣>, <燕燕>을 각각 ‘改’ ‘時’ ‘智’ ‘歸’ ‘保’ ‘思’ ‘情’ 한 글자로 평한 것과 그 용법이 흡사하다.

[<清廟>曰:“肅雍顯相, 濟濟多士, 秉文之德”, 吾敬之. <烈文>曰:“無競維人”, “丕顯維德”, “於乎前王不忘”, 吾悅之. “昊天有成命, 二后受之”, 貴且顯矣. 頌□□□□□□□□□□6

<詩經 周頌> 가운데, <清廟>, <烈文>, <昊天有成命>과 같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하여 한 구절씩을 인용하면서 단평을 가한 것이다. 李學勤과 李春은 제6간을 시작하는 단어 ‘多士’는 <清廟>의 “肅雍顯相, 濟濟”에 이어지는 구절로 이해하여, 이 제6간을 제22간 다음에 배치시켰다. 이는 <周頌·清廟>의 첫 구절은 “아, 심원한 청묘에, 엄숙하고 위엄을 가진 훌륭한 상이며, 수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받들고(於穆清廟, 肅雍顯相, 濟濟多士, 秉文之德)”로 된 <詩經>의 원래 내용을 근거



로 한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昊’자와 아래 重文符號 ‘=’는 ‘昊天’을 가리킨다. “천제께서 이루신 명이 있으시거늘, 두 임금께서 받으시니라”<sup>33)</sup>는 《周頌》의 여섯 번째 시 <昊天有成命>의 첫 구절이다. 李零은 마지막 “頌 ~” 이하를 제4간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李學勤은 缺文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第六章 《東方未明》有利詞. 《將仲》之言, 不可不韋(畏)也. 《揚之水》其愛婦烈. 《采葛》之愛婦 [切].  
□□□□□□□□□□□□□□□□□□□□□□□□  
□□□□□□□□□□□□□□□□17

<東方未明>은 《國風·齊風》 중의 한 편이며, <將仲>은 《鄭風》 중의 <將仲子>를 가리키며, <揚之水>의 ‘揚’은 ‘揚’의 通假字로 쓰인 예로, 이 작품은 《王風》·《鄭風》과 《唐風》 중에 보이는 한 편인 <揚之水>를 가리킨다. <采菘>에 대하여 馬承源은 현행본 《詩經》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으로 간주하였고,<sup>34)</sup> 黃懷信 등은 《王風》의 <采葛>로 보았다.

《[君子] 陽陽》小人. 《有兔》不逢時. 《大田》之卒章. 知言而有禮. 《小明》不 [得歸] 25

죽간의 길이가 20cm에 총 22자가 남아있으며, 上下端 모두 파손된 상태이다. 죽간의 길이와 너비, 전후 문맥과 字體의 유사성을 근거해볼 때, 제25간(20cm, 22자)과 제26간(23.4cm, 22자)은 중간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원래 동일한 죽간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腸腸>(《大雅·蕩之什·蕩》)은 소인에 대한 노래이고, <有兔>(《王風·兔爰》)은 때를 만나지 못한 인생을 한탄하는 시이고, 《小雅·大田》의 마지막 장은 시인의 지혜와 예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小雅·小明》은 [돌아갈 수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節南山》] 忠. 《邶·柏舟》悶. 《谷風》悲. 《蓼莪》有孝志. 《隰有萇楚》

33) 周頌 <昊天有成命> “昊天有成命，二后受之”  
34) 馬承源 前掲書 147쪽.



비교하여 滿寫簡으로 볼 경우, 파손된 상단부분에 27자 이상이 더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小雅·鹿鳴><周南·兔置>의 詩意를 평론하는 내용이다. 사라진 내용도 <國風>이나 <小雅>와 관련된 작품에 대한 평론일 가능성이 많다.

第七章 [《大夏·皇矣》曰：“帝謂文王，予]懷爾明德”，害(曷)? 誠謂之也；“有命自天，命此文王”，誠命之也，信矣。孔子曰：此命也夫！文王雖欲也，得乎？此命也 □□□□□□□□□□7

李零은 제5간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으나, 李學勤은 이 죽간을 <大雅·皇矣>의 시구 “[帝謂文王，予]懷爾明德”에서 앞 구절이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整理本에서는 <孔子詩論> 가운데, <大雅>를 평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제7간뿐이지만, 이외에도 “不曰生民未之也”라는 <大雅·生民>편에 대한 평론으로 추정되는 단절된 구절이 보이고 있음을 주시하였다. 내용상 다른 죽간과도 연결이 쉽지 않으므로 제7간 뒤에 임시로 놓는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5)</sup> 필자는 이어지는 구절 역시 <大雅·大明>의 시구인 “有命自天，命此文王”으로 보아, <大雅>의 작품들에 대한 단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7간의 마지막 부분은 제2간의 첫 부분 “時也，文王受命矣”와 내용상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寺(時)也，文王受命矣。第八章 <頌>，平德也，多言後，其樂安而遲，其歌紳(伸)而易(逸)，其思深而遠，至矣！<大夏(雅)>，盛德也，多言□□□□□□□□2

<頌>과 <大雅> 시의 특징에 대하여 총괄하여 평론하고 있다. <頌>은西周 왕실의 宗廟祭祀에 관한 樂曲이기 때문에 曲調는 다른 음악에 비하여 완만하고 장중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大雅>는 성대함에 그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李學勤·李零 등은 “寺也，文王受命矣”의 구절을 제7간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간주하였고, 제2간은 제3간과 함께 <頌>·<大雅>와 <風>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하였다. 濮茅左는 마지막 ‘多言’ 다음에 한 竹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제3

35) 이상 馬承源 主編 上博書(一) 134-135쪽 참조.

간과 연결하여 “多□也, ……矣. <困雁>困德也”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였다.<sup>36)</sup>

□□□□ [《小夏(雅)》, □德] 也, 多言難而(怨)退(懟)者也, 衰矣! 少(小)矣! 《邦風》, 其內(納)勿(物)也專(博), 觀人谷(俗)焉, 大僉(斂)材焉, 其言文, 其聖(聲)善.  
第九章 孔子曰: 惟能夫 [《詩》], □□□□□□3

整理本은 <頌>·<大雅> 다음으로 <小雅>에 관한 총체적인 평론을 가하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8간에서는 <小雅>의 ‘少德함’에 관한 예로 <十月>·<雨亡政>·<節南山>등을 평하면서 “모두 왕실의 쇠락을 읊은 것이고, 王公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皆言上之衰也, 王公恥之).”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孔(孔子)曰: 佳(唯)能夫”와 연결되는 竹簡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개 이 구절을 독립된 부분으로 간주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 第十章 [孔子]曰: 詩其猶平門與? 賤(賤)民而(欲)之, 其用心將何如? 曰: 《邦風》是也. 民之有戚患也, 上下之不和者, 其用心也將何如? □□□4

제5간이 <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小雅>와 <大雅>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是也. 有成功者何如? 曰: 《頌》是也. 第十一章 <清廟>, 王德也, 至矣! 敬宗廟之禮, 以爲其本: “秉文之德”, 以爲其業: “肅雍(顯相)”□□□□□5

‘是也’는 문맥으로 보아 앞부분 <大雅>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清廟> 앞에 큰 흑점의 부호 ‘■’는 단락이나 장이 나뉘지는 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3간의 마지막 부분 ‘孔子曰’부터 여기까지, 먼저 <詩>에 대하여 총론을 서술한 후, <風>·<小雅>·<大雅>와 <頌>의 내용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詩序>의 경우와 흡사하다. 특이한 점은 孔子가 묻고 대답하는

36) 濮茅左 <孔子詩論簡序解析>(《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 2002. 3. 23쪽).



#### 4. 정리하는 말

본 연구는 죽간에 대한 최초의 整理本인 馬承源의 上博簡 <詩論>의 배열과 분장에 대한 여러 見解들을 정리해본 것으로, 필자는 이 가운데 최근 학계의 논의를 종합한 黃懷信 <解義>에서 제시된 복원내용을 바탕으로 整理本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비교 작업과 죽간의 실제 비평내용, 서술 체계, 죽간의 길이와 형태 등을 근거로 배열순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숫자는 整理本 죽간의 배열순서이다.

(1) <詩經> 國風 周南 7편 각 작품을 한 글자로 평론한 것, 그러한 평론의 이유를 두 차례 거듭하여,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 10(46cm), 14(24.5cm)-12(43cm), 13-15(42.1cm), 11(38.1cm), 16(47.8cm, <燕燕>之情, 以其獨也.)

(2) 孔子의 평론을 인용한 부분. 國風 周南, 召南, 衛風, 唐風에 대하여 각각 “吾以<>, 得…….(나는 <>로부터, ……를 깨닫게 되었다>)”의 문장형식으로 평론한 내용. 16(47.8cm, 孔子曰……), 24(53.8cm), 20(44.3cm), 27(43cm, 賓贈是也.)

(3) 唐風에 대하여 두 글자로 평한 孔子의 평론을 인용한 부분과 평론자의 부연 설명. 小雅와 國風 邶風, 衛風, 唐風을 평론한 부분. 27(孔子曰……), 19-18(40.2cm)

(4) 小雅만을 평론한 부분. 8(52.4cm), 9(53.8cm), 21(47.6cm, <湛露>之賾也, 其猶車它與(賦)!

5) 孔子의 國風 평론을 인용한 부분. “<吾□(善, 喜, 信, 美, 敬, 悅, □)之”라고 평한 후, 다시 각 작품 <宛丘>로부터 <昊天有成命>까지 실제 시구를 예로 들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분.

21(47.6cm, 孔子曰……), 22(38.4cm), 6(49.5cm)

6) 國風만을 한 글자 혹은 두자, 그 이상의 문장으로 평론한 부분. 17(24.1cm), 25-26(43.4cm), 28-29(39cm), 23(27.7cm)

7) 大雅 <皇矣>의 시구를 들어 그 詩意를 추정하고, 공자의 평을 인용하여 실제 작품과의 연관성을 부연하여 밝히고 있는 부분. 7(42cm), 2(55.5cm, 文王受命矣.)

8) 詩序의 성격이 강한 부분. 頌, 大雅, 小雅, 國風에 대하여 개괄하여 평론한 부분.

2(《頌》, 平德也,……), 3(51cm, 其言文, 其聖(聲)善.)

9) 孔子의 시론을 개관하고 있는 부분. 공자의 시관, 즉 詩經의 가치와 효용을 國風, 小雅, 大雅, 頌의 순서로 밝히고 있는 부분. 3(孔子曰……), 4(46.1cm, □□□□ □□□ … [孔子]曰……), 5(47.5cm, 有成功者何如? 曰: 《頌》是也.)

10) 周頌 <清廟>의 최고의 가치가 주제에 있어, 王德에 있음을 밝히고, 孔子의 詩觀으로 총 마무리 짓는 부분. 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총괄하여, 시와 음악과 글이란 뜻(志, 意)과 감정(情)을 표출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총론적 성격이 강한 부분. 5(《清廟》, 王德也,……부터), 1(22.2cm, 行此者其有不王乎? … 孔子曰……文無隱意.)

#### 《參考文獻》

- 王小盾 《詩六義原始》(《揚州大學中國文化研究所集刊》第一輯, 江蘇古籍出版社, 1998).
-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二),(三),(四)》, 上海古籍出版社, 2001. 11.-2004.12.
- 李學勤 <《詩論》簡의 編連與復原> (《中國哲學史》2002. 第2期). <上海博物館藏楚竹書詩論分章釋文>(《國際簡帛研究通訊》第二卷 第二期, 2002. 1).
- 張桂光 <戰國楚竹書·孔子詩論文字考釋>(《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 2002. 3).
- 朱淵清 廖名春 主編 《上海博物館藏楚竹書研究》, 上海書店出版社, 2002. 3.
- 濮茅左 <孔子詩論簡序解析>(《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2002. 3).
- 范毓周 <上海博物館藏楚簡詩論的釋文,簡序與分章>(《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
- 李 銳 <孔子詩論簡序調整芻議>(《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2002. 3).
- 李 零 <上博楚簡校讀記(之一)>(《中華文史論叢》第68輯, 2002. 4).
- 廖名春 <上博詩論的形制與編連>(《孔子研究》2002. 第2期).
- 姜廣輝 <關於古《詩序》的編連,釋讀與定位諸問題研究>(《中國哲學》24輯).

曹 峰 <對孔子詩論第八簡以後簡序的再調整>(《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 2002.3).

黃人二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一) 研究》(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6).

曹建國 <論上博孔子詩論簡的編連>(인터넷사이트 www.jianbo.org).

劉信芳 《孔子詩論述學》, 安徽大學出版社, 2003.

黃懷信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詩論> 解義》,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8.

#### 《ABSTRACT》

The discovery of <Criticism on the Book of Songs(詩論)>(the 29 bamboo pieces of 《Shanghai Museum Bamboo Manuscripts(上博楚簡)》) has given rise to great interest in bibliography among learned circles. Firstly, it is the first relatively systematic official document 《詩經》 containing criticism of poems discovered until today. Secondly, it is important material for studying Chinese Classic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originals and the criticism, and introduces opinions hitherto brought in by existing learned circles. The Writer aims to set up a reasonable opinion on the arrangement of the 29 <Wooden Bamboo Manuscripts>, and suggests filling words,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s, based on Hunag Huai-Xin(黃懷信)'s 《Explanation and Translation for the Poetics Bamboo Slips in Shanghai Museum(解義)》

**Key word** : 《Shanghai Museum Bamboo Manuscripts(上博楚簡)》, <Criticism on the Book of Songs(詩論)>, Arrangement, Confucius, Hunag Huai-Xin(黃懷信), 《Explanation and Translation for the Poetics Bamboo Slips in Shanghai Museum(解義)》